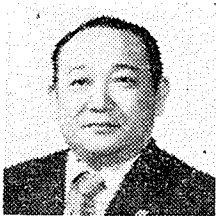


美國기생충學界의

最近 동향



李 根 泰

제51차 미국 기생충학회가 금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텍사스주의 산안토니오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기생충학회의 가을 정기 총회처럼 매년 열리는 학술회의로 1924년에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각 회원들이 일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모임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생충 관계자들이 관심을 모으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도 미국 기생충학회의 일원으로써 과거 몇 번 참석한 바 있지만 여유만 있다면 매년 참석하고 싶은 모임이다. 학술적인 폭이나 깊이가

말 할것 없지만 그 규모 또한 커서 우리나라의 학회가 빨리 이 정도의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염원이다.

금년 제 51차 모임에 필자는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서신교환 및 초록집을 통해서 얻은 몇 가지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155개의 연제가 5일 동안에 두 그루옴으로 나뉘어 발표되었으며 그중 6 연제는 전시를 해 놓았다고 한다. 이 전시라는 것은 금년 봄 일본기생충학회에 참석하여 관찰한 바 있지만 표제에 따라 입체적으로 자료를 진열하고 설명을 써

놓은 것으로 우리 눈으로 직접보고 관찰할 수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 볼만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외에 149개 연제는 각 기생충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형태와 미세구조, 역학, 발육과 생활사, 시험관내 배양, 생화학적 및 생리학적연구, 병리학, 실지답사조사, 면역학 및 혈청학, 그리고 화학요법 및 구제등 9개 세부항목 별로 발표되었다. 한편 록시디오시스(Coccidiosis)에 대한 특별연제 4개가 첫 날 발표되었다. 이 록시디오시스라 함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으로 원충류의 일종으로써 주로 동물에만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근래에는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기생충으로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발표된 연제들의 내용을 보면 역시 모든 기생충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주혈흡충증을 유발하는 주혈흡충류, 말라리아원충, 수면병을 유발시키는 트리파노소마류, 포자원충류 등이 많았으며 기타 촌충류, 동물의 근육이나 사람의 근육에 주로 기생하는 선모충, 그리고 사상충 등 많은 종류의 기생충에 대한 연구 내용이였다. 전체적으로 봐서 근래에야 알게된 원충류에 대한 연제가 가장 많았고 다른 기생충에 대한 것도 근래에 많이 보급

된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연구내용이 많았다. 원충류는 이질이나 말라리아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수 없이 많음이 차차 밝혀지고 있음으로써 중요한 기생충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야 될 줄 안다. 특히 토양이나 물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아메바류(자유생활아메바)가 사람에 감염되었을 때 뇌염과 비슷한 뇌척수막염을 일으키고 심한 것은 일주일 내지 열흘안에 죽게되어 이 기생충에 대한 연구가 미국, 유럽이나 호주, 심지어는 공산국가에서도 행하여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연구되고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연구보급되고 있는 면역학적 혹은 혈청학적 연구가 개괄적인 방법에서 좀 더 깊고 세부적인 방법으로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충분한 그들이 부러울 뿐이다.

한편 하수나 오물에서 발견되는 기생충에 관한 연구나 그 속에서 기생충 혹은 충란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연제가 있었는데 이는 기생충학적 중요성만 아니라 공중보건학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지대한 것으로 이는 각국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채소나

인체를 투명체로

생각하자

배 목 천

<필자=창녕농업고등학교교사>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체내 기관이 환히 들여다 보이지 않게 만든게 기이하다. 아니 기이하다기 보단 정말 다행이다. 만의 일이라도 실수하여 인체의 외피를 투명체로 둘러 싸 놓았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루 세끼 입으로 들어가 항문으로 나오는 배설 과정이며 장내 계기관의 작동 모습을 뽀히 들여다 보면서 인간은 무수한 생각들을 엮어 나가리라.

육탕에 마주앉아 서로의 내부를 비교 분석하면서 소화기 내에 저장되는 식물(食物)의 양과 질을 보아 빈부의 차를 알아내고 직업을 추측하고 소화의 상태를 보아 시간의 흐름을 짐작하며 생리적인 반응을 예측도 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과 전문의의 진료에 일대 변혁을 초래하며 국제 간첩단의 비밀 문건 장내 은닉을 곤란하게 할지도 모른다. 어찌 이뿐이라.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체내 소화과정에서 투시되는 각종 부패작용을 육안으로 음미함은 결코 아름다운 정경은 아니리라. 더더구나 회충요충, 편충, 12지장충 등 각종 기생충의 활동상황을 상상이라도 하여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일이니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다 함께 인체를 투명체로 생각하자. 수 많은 기생충이 우리 몸 안에서 우글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여 보자. 우리 제일 먼저 해야 할 급선무는 과연 무엇일까?

수세식변소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곳에서는 오물이나 하수를 통한 기생충의 전파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깊이 연구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이상 금년 미국기생충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몇가지 필자의 소견을 밝혔다. 미국사회의 재정적 지원이나 학자들의 진지한

연구태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이 기회에 재차확인했으며 우리 기생충학자들이 앞으로 하는 일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은 연구결과가 나올것으로 확신한다.

<필자=연세의대 기생충학교수·의박>